

전남도 농업인 대상 선정

전남도는 17일 모두 6개 분야의 '전남도 농업인 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고소득 쌀 생산 분야에서는 오리농업 등 친환경농법을 이용해 무농약 6ha, 저농약 12.3ha 등 18.3ha의 논에서 100% 친환경쌀 인증을 받은 해남군 박광은(43)씨가 선정됐다. 또 원예특용작물 분야에서는 두리농농조합법인을 조직해 친환경 기능성 쌀채소 생산단지를 조성, 자체 브랜드로 연간 12억 6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담양군 김상식(43)씨가 뽑혔다.

유통가공 분야에서는 나주배, 흙, 양파, 복분자, 약용작물 등 도내 농산물을 이용해 기능성 음료를 생산하는 나주 이천식품영농조합법인(대표 서양현·60)이 선정됐다. 축산 분야에서는 돼지 2만 5천마리를 사육해 연간 54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무안군 박천재(49)씨, 임업 분야에서 임야 24ha에서 연간 표고버섯 10t, 두릅 1t을 생산, 연간 6천5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산양삼, 녹차, 오가피 등 새로운 산림소득 작목을 육성해 온 곡성군 신종연(53)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농산물 수출 분야에서 고흥군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대표 김종남·47)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오는 24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막식 때 도지사 상패를 준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박광은씨〉 〈김상식씨〉
 〈서양현씨〉 〈박천재씨〉
 〈신종연씨〉 〈김종남씨〉

“평생 제 편 돼줄 사람 만났어요”

“생애 가장 떨리는 순간이네요.” 배우 성현아(32)가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12월9일 오후 1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 실연자의 사표를 허은교 씨와 웨딩마치를 올린다.

까만색 상의와 바지도 시크한 멋을 뽐낸 성현아는 “일반인인 예뻐 신랑이 너무 썩스러워서 혼자서 기자회견에 나섰다”며 환하게 웃었다.

예뻐 신랑에 대해 “할리우드 배우 러셀 크로를 닮았다. 내가 보기에는 귀엽다”며 미소지은 그는 “함께 10년을 보냈을 경우를 생각할 때 미래가 보이는 상대. 그동안 결혼을 하면 여러 면에서 제약이 많을 것 같아 망설였는데 이 사람이려면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 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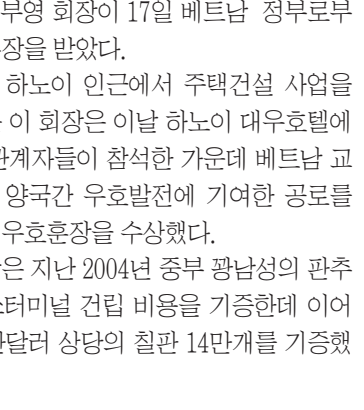
성현아, 12월 9일 부산서 웨딩마치

이준근 부영 회장 베트남서 우호훈장 받아

이준근 부영 회장이 17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호훈장을 받았다.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장은 이날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교육발전과 양국간 우호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호훈장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중부 광남성의 판추청 중학교와 하대이성 하동시 버스터미널 건립 비용을 기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국 초등학교에 1천만달러 상당의 칠판 14만개를 기증했다.



이준근 부영 회장이 17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호훈장을 받았다.

“미얀마 국민, 한국 정치인 도움 기다려요”



광주서 민주화 캠페인 참석 '버마행동' 대표 두라씨

“미얀마 국민들의 군부독재에 대한 항쟁은 결코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정치인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난 1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원자사에서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에 참석한 ‘버마(미얀마) 행동’ 대표 두라(Thu Ra-36)씨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행동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한국의 ‘민주화 세대’ 정치인들에게 쓴 소리를 했다.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미얀마 국민을 돕겠다고 말했던 한국의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5·18 등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경험한 그들이어서 희망을 가졌지만 언제나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1994년 한국에 들어온 후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 도움을 주겠다는 다짐을 받았지만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느낀 것이다.

또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항쟁’을 경험해본 한국 정부의 소심한 행보에도 놀랐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1980년 광주의 5·18 민주항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기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감스럽다는 논평 뿐 미얀마 군부에 무기 등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과연 민주화를 경험한 국민가의 의식스런가까지 합니다.”

그는 1994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명분은 산업연수였지만 당시 미얀마의 민주화분위기로 인해 외국의 민주화 과정을 배우기 위해 입국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의 심한 차별과 폭행으로 6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으며, 미얀마 실상을 알리는 ‘버마 행동’ 단체를 지난 2004년에 결성 후, 우리나라 정부에 ‘정치적 난민’을 신청해 합법적인 체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시작된 미얀마 군정의 민주화 시위는 군부정권의 강력한 탄압과 언론 통제로 내부 사정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외신 등을 통해 ‘시민 1천 명 사망·1만 명 부상’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두라 대표는 “이번 항쟁은 결코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시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문제다”라며 “우리들을 지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국민과 함께한다는 생각·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목소리를 높여 주는 등 연대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참상 전해 달라던 의사 눈빛 못잊어”

전 아사히 신문 기자 사이토씨의 5·18 취재담

“5·18 당시 삼엄했던 검문군 군인이 알려진 암호로 무사통과했어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현장 취재했던 당시 일본인 기자가 당시의 생생한 취재담을 들려줬다.

전 아사히(朝日)신문 기자인 사이토 타다오미 히로시마 평화연구소 이사장(사진)은 같은 신문 사진부 기자였던 아이오 카츠오씨와 함께 17일 오후 호남대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5·18 민주화운동 10일만 자신들의 눈에 비친 5·18을 담담히 풀어냈다.

2003년 1월까지 38년간 아사히 신문 기자로 활동했다는 사이토씨는 “아사히 신문 창간 100주년(1979년)에 즈음해 특집을 관련 취재차 아이오 씨와 한국에 와서 5·18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1980년 5월 16일 ‘광주 학생 대모가 커질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9일 광주로 향해 금남로 집회와 광주 MBC 방송국 방화, 총격전 등을 목격했다”고 회고했다.

“병원에서 ‘이 참상을 일본에, 세계에 알려달라’고 말한 짧은 의사의 눈빛을 기억한다”는 사이토씨는 23일 아침

3시간 정도 걸어 찾아간 농가에서 트랙터를 얻어 타고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에 도착해 다음날 아사히 신문 1면에 게재된 ‘본토의 광주 피와 파국을 현장에서 보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송고했다.

특히 그는 1980년 5월 27일 밤 서울에서 광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검문군 통과하면서 겪은 일화를 털어놓아 관심을 끌었다.

그는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라며 “서울에서 택시를 대절했는데 그 운전수는 군대에서 갓 재대한 경상도 출신이었고 검문했던 군인도 경상도 출신이었다”며 “사투리로 출신지역을 알아본 이들이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눈 뒤 군인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는 암호를 가르쳐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광주에 있던 학생들에게 살의(殺意)는 없었다”며 “27년 전 순교와 같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피 뒤에 ‘지금’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필뉴스

윤진섭 교수 국제미술평론가협 부회장에

윤진섭(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호남대) 교수가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critics)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윤 부회장은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41차 국제미술평론가협회 총회에서 회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아 부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3년.

한국에서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을 맡게된 것은 윤 교수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전시기획자 후미오 난조, 대만의 차후신 첨이 부회장을 지냈다.

윤 부회장은 홍익대 미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 철학박사를 거쳐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제1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예술감독, 상파울루비엔날레 국제전 큐레이터 등을 역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진섭 교수 국제미술평론가협 부회장에

이연우 목포대 교수 인명사전 3년째 등재

이연우 목포대 정보공학부 교수는 최근 세계 3대 인명 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8)’ 25주년 특별판에 등재됐다. 이 교수는 2005년 이후 3년 연속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 교수는 최근 4년 동안 미국 전기전자학회, 영국 전기전자학회, 일본 전기전자학회 등에 이동통신 시스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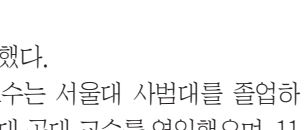


발과 관련한 10여 편의 SCI급 국제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으며 특허출원과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랑스런 광주공고인 대상’ 박형규 교수

광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규용 전남건설협회장)는 전남대학교 박형규(1회·사진) 명예교수를 ‘2007 지랑스런 광주공고인 영예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 국제기능을 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던 김일주(34회), 류재호(42회), 최병철(47회), 정몽치(51회) 씨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공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11대 광주공고 총동창회장을 맡아 후진양성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별상 수상자인 김일주씨는 호주 시드니 29회 국제기능을 립에서, 류재호씨는 대만 타이페이



여기로 했다.

조선대-전남대 총동창회 21일 친선 골프대회 개최

조선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원구·사진 왼쪽)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김국용·오른쪽)가 오는 21일 무안 컨트리클럽에서 제 1회 조선대-전남대 총동창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양 대학 동창회가 친목도모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한 행사로, 양 대학 총장을 비롯



조선대-전남대 총동창회 21일 친선 골프대회 개최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이정용씨 차남 광재(광주드림 기자)군 위문남씨 차녀 이은주양=21일(일) 오후 1시20분 경북곡 웨딩홀 2층 고운을, 피로연 21일(일) 오후 3시 지유.

▲이하림(광주시 동구경 경제과장)씨 장남 경민군 조기권씨 장녀 지선양=21일(일) 오후 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김정인(조선대 부속고교 교장)씨 장남 건근 김순조씨 장녀 정현양=20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이어홀.

▲정동운(전 도의원)씨 장남 혁(사회복지사)군 김상호씨 장녀 희정(기독교 신문사)양=20일(토) 오후 1시 서울 성공회대 채플실.

▲이노균씨 장남 정명군 황금철(전 목포교육청 관리과장)씨 장녀

정설양=20일(토) 오후 1시40분 상복예식장 3층 무궁화홀.

▲한광섭(덕평산업개발) 대표·전 국민은행 광주기업금융 지점장)씨 차남 휘호군 양주현씨 차녀 민정양=21일(일) 낮 12시40분 예블루 선웨딩홀 3층 칸벤션홀.

▲이정순씨 아들 김상훈군 조형주(여수교육청 관리과장)씨 딸 은경양=21일(일) 오전 11시40분 광주교직원공회관 3층 예식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합정 민원실 2층.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 18회 동창회(회장 노시혁) 월례회=18일(목) 오후 7시 전가복. 233-2337

▲대성초교 19회 동창회(회장 하호기) 모임=19일(금) 오후 7시 일미식당. 016-651-9772

▲광주대 총동창회(회장 김운세) 임시총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행사=19일(금) 오후 6시30분 유토피아웨딩홀 4층 대연회장. 369-6882~3

종친회

▲청영초제 광주·전남 청년회 모임=18일(목) 오후 7시 광명해물가든. 010-6688-8983

▲진주정씨 진양군 총장공파 대종회 사인정 복원 준공식=20일(토) 오전 11시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내동 은행나무 들.

▲창원황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 강원도 철원 세장산 향사 봉례(시향)=24일(수) 오전 9시 광천동 터미널. 232-6400

모임

▲광주 광방회 월례회=18일(목) 나주 남평 죽림파크 가든(061-331-2586). 오후 7시 남구 방림동 광방회 사무실 앞 집결. 011-627-1466

▲국제라이온스 355-B1, 355-C 지구 자연 보호 및 친선 등반대회=21일(일) 오전 6시30분 문화예술회관.

모집

▲고영우·박미숙 댄스스포츠 스쿨 수강생 모집=입시반, 자격증반, 지도자반, 선수반, 일반 취미반 수시 모집. 동구 거주 근로자 월 4만원 지원. 526-8046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 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

부음

▲한금주씨 별세 정몽희·양희(㈜성원테크 대표이사)·원희(㈜한국건설연구소 대표이사)씨 모친상=발인 19일(금) 무등장례식장 101, 203호. 515-4488

▲최원선씨 별세 종만(광주가정교회 목사)·기호(개인사업)·성호(신한은행 부지점장)씨 부친상=발인 18일(목) 남도장례식장 201호. 223-7715~6

방방무청 현역입영팀 230-4246~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우 사회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고품질/저비용/대형주차장!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대포구제진-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 (광복로점)

사전예약 하신 분에 사용료의 2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님 모두 특별분양

☎ (062) 521-1100